

2026년 서울 바이오-AI-의료데이터 융복합 지원 사업 FAQ

<서울바이오허브 연구지원팀, '26. 3. 23.>

1 지원 자격 및 조건

Q1: 서울 소재 기업이란?

- ↳ 본사,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중 어느 하나라도 서울시에 소재하면(증빙서류 필수 제출) 서울 소재로 인정됩니다. 그 외는 불인정 됩니다.
- ↳ 서울시 소재 기업 여부는 사업자등록증(본점 또는 지점, 단 종된 사업장은 지원 대상 제외), 법인등기부등본(본점 또는 지점),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하며, 해당 서류상 소재지가 서울시인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Q2: “AI기술 지원기관(기업)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지원”은 어떤 의미인가?

- ↳ 트랙 구분과 무관하게 모든 지원은 AI기술 지원기관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수요기업이 AI기술에 대한 자체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외부 지원기관과의 협력은 필수입니다. (자체 AI기술 개발 역량이 충분하여 타 지원기관의 도움이 불필요한 경우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3: AI기술 지원기관은 대/중/소기업 또는 지역 제한이 있는가?

- ↳ AI기술을 지원해 주는 기관은 규모 및 소재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외국 기업은 제한됩니다.

Q4: 지원하는 트랙이 3개(ⓑring-up / ⓒrow-up / ⓓest-up)로 구분돼 있는데, 트랙별 지원 가능한 기업 수가 정해져 있나?

- ↳ 트랙별 지원 기업 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원하는 트랙별 경쟁률에 따른 수요기업 선정 유/불리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Q5: 지원하는 3가지 트랙별 대상기업 특징과 세부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일부 내용의 중첩이 가능한가?

↳ 트랙의 구분은 수요기업이 지원받고자 하는 주요 연구/개발/사업화 분야를 구분하여 수요기업이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유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요기업이 본 사업에 지원하면서 핵심적으로 지원(수행) 받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트랙㉔와 ㉕가 중첩될 수도 있고, 트랙㉖와 ㉗가 중첩될 수 있으며, 심지어 모든 트랙이 중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 지원 시 어느 트랙이 사업의 핵심인지를 기준으로 반드시 하나의 트랙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2 지원 범위 및 사용 가능 비목

Q6: 본 사업을 통해 (비)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가?

↳ 본 지원사업은 임상시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AI 기술을 활용(적용)한 연구/개발/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비)임상시험을 통해 산출된 (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본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증이나 실증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본 지원사업을 위해 부차(부가)적으로 (비)임상시험을 수행할 수는 있으나 그것(비/임상시험)이 본 사업의 주 목적(목표)이 될 수는 없습니다.

Q7: 인·허가를 위한 각종 시험성적서 발급 비용을 본 지원사업비로 집행 가능한가?

↳ 인·허가 또는 본 사업의 목표 성과지표 달성 여부 확인을 위한 각종 시험성적서 발급의 경우(그 성적서를 인·허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 역시 제한하지 않음)는 가능하지만, 본 지원사업과 무관한 시험성적서 발급은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지 않습니다.(각종 시험성적서 발급 비용 집행 시 해당 시험이 본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수요기업이 증명해야 합니다.)

Q8: Test-up 트랙에 지원하기 위해 사전에 의료기관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가?

↳ 수요기업이 본 사업에 지원할 때 수요기업이 필요로 하는 의료데이터를 제공

가능한 의료기관을 사전에 매칭한 경우는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본 사업에 지원(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수요기업 자력으로 AI기술 실증을 위한 의료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의료기관과의 매칭이 어려운 경우는 주관기관에서 이를 지원합니다. 이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의료데이터 활용 연구계획서(신청서 21쪽)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지원 규모 및 사업비 구조

Q9. 사업화지원금(5천만 원)으로 수행할 수 있는 AI기술 도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작은 규모로 여러 가지를 수행하여도 되는가?

↳ 본 지원사업은 단일 아이টে에 대한 연구/개발/사업화를 위한 지원사업이므로, 이(단일) 아이টে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련의 세부적인 활동이 여러 가지로 분기되는 경우는 인정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다른 이슈(아이টে)에 대한 사업을 묶어서 수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10. 수요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지원받는 기술 분야도 다른데 사업의 성과지표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 사업 기간(최대 7개월) 및 사업비 규모(사업화지원금 5천만 원 + 기업부담금 5백만 원)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연구/개발/사업화)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맞게 달성 가능한 성과지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핵심 성과지표(KPI)가 너무 과대 혹은 과소하거나 적절성이 부족한 경우는 사업 절차 중 “성과지표 컨설팅” 과정에서 이를 검토하여 수정/보완해야 합니다.

Q11. 기업부담금(10%)과 부가가치세(VAT)는 별개인지?

↳ 기업부담금과 부가가치세(세금)는 별도로 산정됩니다.

즉,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사업화지원금(최대 5,000만 원)'과 '기업부담금(사업화지원금의 10% 이상: 500만 원 이상)'을 합산한 금액이며, 총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10%)는 기업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본 지원사업이 각종 세

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비 구조 예시>

구 분	사업화지원금	기업부담금	합계
사업비	50,000,000원	5,000,000원	55,000,000원
부가세	-	5,500,000원	5,500,000원
총액	50,000,000원	10,500,000원	60,500,000원

Q12. 과제 해결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이 본 사업의 사업화지원금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추가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가?

↳ 본 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 기간(최대 7개월) 내 5.5천만 원(사업화지원금 5천만 원 + 기업부담금 5백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지원을 포함한 연구/개발/사업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총 사업비(5.5천만 원)를 초과하는 경우는 사업의 범위를 기간과 사업비 규모에 맞게 적절히 조절(축소)하거나, 사업비를 초과하는 만큼 기업부담금을 증액(부담)하여야 합니다.

4 연장 기간 중 재신청 방법

Q13. 연장 기간 중 기존 신청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신청하려고 하는데, 재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연장 기간 중 기존에 제출한 신청서를 수정하여 재신청하려는 경우, 기존 신청 건이 먼저 취소되어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 김태영 전문원(02-2200-337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